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수행 시간과 심리적 어려움에 관한 연구*

안소영¹

A Study on Working Time and Psychological Difficulties of National and Public
Daycare Center Teachers in the Operation Process of an Accreditation System*

An, So Young¹

본 연구는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수행 시간과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냄으로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29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4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보육교사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평가인증 운영 과정에서 교사는 매일 11시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영유아와의 상호작용과 그 외 업무 사이’, ‘자유로운 탐색과 안전·건강 사이’, ‘우리 이야기와 외부 기준’ 사이에서 갈등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교사의 인식전환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첫째, 평가지표 수행보다는 질 높은 보육에 관심을 두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부분 최적화가 아닌 전체 최적화에 관심을 두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교사의 심리적 어려움을 탐색함으로써,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놓쳐서는 안 될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주제어** 평가인증, 직무수행 시간, 심리적 어려움, 해결방안

* 인덕대학교 2014학년도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권리존중 관점에서 본 평가인증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2014년 4월 국회에서 발표한 ‘연구보고 2014-4’의 일부 설문자료를 활용하였고, 2015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¹ 제1저자(교신저자) : 인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E-mail : ansy7@induk.ac.kr)

I. 서론

평가인증제도란 보육계와 일반사회에서 공히 인정을 받은 대표기관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을 수립하고, 개별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인증기관이 설정한 표준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에 있으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증서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Doherty-Derkowski, 1995).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집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2005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시행된 제도이다. 그 후 2009년까지 1차 시행을 마치고, 2010년에는 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해 평가지표의 개선, 보완, 기본사항 확인 절차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제 3차 평가지표가 시범 적용되고 있다. 3차 평가지표는 2차 평가지표와 비교해볼 때, 평가지표가 간소화되었고 명확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변별력 강화, 현장의 문서 준비 부담 완화, 아동 학대 및 안전사고 예방 강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강화 등 보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다(한국보육진흥원, 2015). 또한 2014년 영유아보육교육통합추진단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와 유치원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서문희, 2015)하여 현장 적용을 앞에 두고 있다.

평가인증 도입 이후 10여년 동안 평가인증제도는 평가인증의 절차나 영역, 지침 등에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수정·보완되어 왔다. 그러나 평가인증은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한결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 평가인증의 목적인 보육의 질이란 무엇일까? 이는 여러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다. 먼저 보육의 질에 대한 개념을 구성요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보육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구조적인 질과 과정적인 질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Phillips, Voran, Kisker, & Howes, 1994). 구조적인 질은 일반적으로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 집단의 크기, 교사 교육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과정적인 질은 영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 영유아와 영유아의 상호작용, 부모와 교사의 상호작용, 교사의 민감성과 반응성, 발달에 적합한 교육활동 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보육의 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면(Katz, 1993), 외부에서 미리 정해진 일련의 준거를 제시하는 ‘위에서-아래로의 관점’, 영유아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질로부터 반영되는 ‘아래에서-위로의 관점’, 학부모와 교사가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경험하고 있는 서비스 질에 대한 ‘외부에서-내부로의 관점’, 보육 종사자에 의한 ‘내부의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주민, 더 나아가 전체 사회구성원의 입장에서 보는 ‘외부의 관점’이 있다. 보육의 질은 이처럼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되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육의 질은 구조적인 질과 과정적인 질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총체적 관점에서, 그리고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지닌 평가인증 제도는 평가인증 시행 10여년에 이르면서 실제로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에 기여해왔음이 확인되고 있다. 평가인증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면, 행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육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시설관리나 교재교구, 그리고 급식 체계와 관련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에 부합하고자 하는 노력을 유도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교사의 보육과정 운영 및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의 질이 향상되었고, 보육과정을 계획·실시·평가

하는 능력이 신장되었다. 더불어 교사 스스로 연구하고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해짐으로써 교사의 자부심과 전문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김경란, 서동미, 2012; 서문희, 신희연, 송신영, 2009; 차영숙, 유희정, 강민정, 2012; 채혜선, 현정희, 2008).

그러나 위와 같은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평가인증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는 그저 최소한의 수준 유지 정도의 소극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이 평가지표에 익숙해지면서 전략적으로 지표가 제시하고 있는 시설관리나 교육 프로그램 내용, 인력관리 등에 있어서 형식적인 기준만을 충족시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양기용, 2015). 그리고 최소한의 수준 유지에서 더 나아가서는 평가인증이 어린이집의 개별적 특성·설립유형이나 규모·운영 등에 있어서 기관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질적 수준이 높은 어린이집을 변별하지 못하고, 우수한 기관에게는 오히려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는 상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권혜진, 2015).

이와 같이 평가인증은 보육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과 더불어 최소한의 질 유지, 혹은 더 나아가 우수한 기관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도 품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평가인증이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평가인증에서 추구하는 보육의 질 향상은 보육관련 관계자 모두의 역할이고 모두의 몫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는 교사의 역할은 무엇에 비길 수 없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우선은 교사가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요인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어려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사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급하였다(정재은, 정은정, 2012). 영유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낮 시간은 물론, 저녁 늦게까지 평가인증을 위한 서류나 그 밖의 일을 해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평가 지표가 모호하고 현장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며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원 특성을 살리기보다는 이미 통과한 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보여지는 면에만 신경을 쓰고 실제와는 다르게 문서를 조작하거나, 혹은 현장 관찰평가 당일에만 조작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외부 조력자들의 조력 불일치로 인한 혼란, 평가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스트레스, 평가 결과에 대한 우려 등 심리적 불안감도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원장 및 동료 교사 간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었다(정원주, 2007; 조경서, 유준호, 2009; 차영숙 등, 2012; 채영란, 김치곤, 2013; 황인숙, 2006).

이와 같이 교사는 평가인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업무로 인한 시간부족, 평가인증 지표의 현장과의 괴리감과 지표에 대한 이해 부족, 평가기준에 맞지 않을 것 같은 우려로 인한 원내 특성의 은폐 등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었다.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의 교사 어려움은 곧 평가인증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게 된다. 따라서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은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주제이고, 이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과중한 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문서 간소화 및 보조인력 지원, 지표 교육과 조력 기회 확대, 어린이집 현실과 다양성을 고려한 지표 마련 등과 같다(김경란, 서동미, 2012; 김동례, 2007; 김수향, 최연희, 2009; 이나영, 2006; 이진옥,

2008; 정은영, 2012; 정재은, 정은정, 2012; 차영숙 등, 2012; 황해익, 김남희, 정혜영, 2013).

위와 같이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교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과중한 업무, 시간 부족, 지표 이해 부족, 재정 확보의 어려움 등과 같이 단편적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그에 대한 해결방안 역시 드러난 어려움에 대한 개별 맞춤형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즉 업무가 과중하니 문서를 간소화하고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 재정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니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 지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표를 이해하는 교육과 조력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단편적이고 표층적으로 드러난 어려움은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간소화 해 주고, 인력과 재정지원 해 주고, 조력해주는 등과 같이 외부 지원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 그러나 평가인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역할을 맡고 있는 교사의 내면적 변화 없이 외부 변화에만 의존하는 해결 방안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교사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봄으로서, 외부 지원 뿐 아니라 교사 내면의 인식 전환을 통한 어려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교사가 심리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진옥(2008)의 연구를 통해, 평가인증에 참여중인 교사의 대부분(95.4%)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은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직무수행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교사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봄으로서 외부 지원이 아닌, 교사 내면의 인식 전환을 통한 어려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직무수행 현황은 평가인증 운영과정 중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언급(정재은, 정은정, 2012)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직무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때 담당 학급(영아반, 유아반)에 따라 직무내용이 달라지므로(이은정, 2011), 수행 시간에서도 차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교사의 심리적 어려움은 그들이 겪는 생생한 경험과 그 경험에서 느끼는 심리적 어려움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김영천, 2012) 심층면담을 실시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직무수행 시간과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냄으로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직무수행 시간은 어떠한가?
 - 1-1. 담당 학급(영아반, 유아반)에 따라 직무수행 시간에 차이가 있는가?
2.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보육교사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이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 내용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교사가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층면담을 함께 진행하였다. 즉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그리고 교사의 구체적인 직무 내용을 살펴보고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설문조사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291개소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42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교사의 직무별 소요 시간과 심리적 어려움을 을 파악하는 본 연구에서 전체 유형의 어린이집을 포함하기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에 한정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별 근무시간에 대한 사전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형별로 하루 총 근무시간이 최대 49분의 차이(9시간 13분-10시간 2분)가 나타나고 있었고,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움에 있어서도 어린이집 유형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보건복지부, 2012; 정은정,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유형 어린이집의 소수 표본보다는 한 유형 어린이집의 다수 표본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할 때,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통한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의 교사 직무 현황을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 유형의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평가인증 유지 상황이 전체 대비 98.9%(2015년 12월 31일 기준)로서(한국보육진흥원, 2016), 거의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응답자는 어린이집 1개소에서 평가인증의 경험이 있는 영아반 교사 1명, 유아반 교사 1명으로 총 2명이 응답하도록 하였는데, 교사의 평가인증 경험 유무 등의 이유로 1명이 응답한 어린이집도 있었다. 질문지를 회수한 결과, 전체 배포한 424부 중 충실히 응답하지 않은 질문지 11부를 제외하고, 총 413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응답자 어린이집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어린이집의 특성

(N=291)

변인	구 분	n (%)
지 역	서 울	124 (42.6)
	경 기	105 (36.1)
	인 천	62 (21.3)
아동현원	1-39명	41 (14.1)
	40-79명	130 (44.7)
	80-119명	96 (33.0)
	120명 이상	24 (8.2)
평가인증 참여횟수	1 회	103 (35.4)
	2 회	122 (42.0)
	3 회	66 (22.6)

<표 1>과 같이, 어린이집의 지역 분포는 서울이 124개소(42.6%), 경기 105개소(36.1%), 인천 62개소(21.3%)이었다. 응답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참여 횟수를 살펴보면, 1회 참여는 103개소(35.4.0%), 2회 참여는 122개소(42.0%), 3회 참여는 66개소(15.%)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 보육교사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보육교사의 특성 (N=413)

변인	구 분	n (%)	변인	구 분	n (%)
담당학급	영아반	226 (54.7)	평가인증 참여횟수	1회	153 (37.0)
	유아반	187 (45.3)		2회	161 (39.0)
				3회	97 (23.5)
		4회		2 (0.5)	
최종학력	고졸	28 (6.8)	최근에 받은 평가인증 시기	2009년 이전	27 (6.5)
	대학졸(2.3년제)	191 (46.2)		2010년	14 (3.4)
	대학교졸	170 (41.2)		2011년	129 (31.2)
	대학원졸	24 (5.8)			
주전공	보육학	87 (21.1)	2012년	68 (16.5)	
	아동(복지)학	98 (23.7)	2013년	140 (33.9)	
	유아교육학	159 (38.5)			
	사회복지학	29 (7.0)			
	간호학 및 식품영양	5 (1.2)	2014년	35 (8.5)	
기타	35 (8.5)				

<표 2>와 같이, 응답 교사의 담당학급 분포를 살펴보면, 영아반 교사가 226명(54.7%), 유아반 교사가 187명(45.3%)이었다. 평가인증 참여횟수는 1회 참여 교사가 153명(37.0%), 2회 참여 교사가 161명(39.0%), 3회 참여 교사가 97명(23.5%), 그리고 4회 참여교사가 2명(0.5%)이었다.

2) 연구도구

먼저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보육교사가 하루 동안 수행하는 직무 내용과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김은영(2013)의 어린이집 교사 직무분석 틀을 활용하였다. 어린이집 교사 직무분석 틀은 교수학습 준비, 교수학습 실제, 교수학습 평가, 전문성 신장, 영유아보호 관련업무, 학부모 관련 업무, 행사 관련업무, 사무 관련업무, 시설설비 관련업무, 대인관계 및 사회적인 업무의 10개 직무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일상적인 하루 일과 안에서의 직무 수행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연수나 장학 등이 포함되는 전문성 신장, 행사 준비 및 진행 등이 포함되는 행사 관련업무, 시설 및 기자재 관리 등이 포함되는 시설설비 관련업무, 교사 친목이나 지역행사참여 등이 포함되는 대인관계 및 사회적인 업무를 제외한 6개 직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평가인증 운영 과정에서의 심리적 어려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련연구(정재은, 정은정, 2012; 홍성희, 김미정, 이경화, 2009)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총 3회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보육 전문가 4인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고, 현장 교사 2인(경력 6년 2개월, 평가인증 참여회수 2회 / 경력 10년 3개월, 평가인증 참여회수 3회)의 검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수정·보완되었다. 첫째, 교수학습 실제 업무 중 ‘자유선택활동지도’와 ‘실외놀이지도’, ‘낮잠지도’

는 하루 일과 중 계획된 시간이 아니라, 교사가 다른 업무를 보지 않고 직접 영유아를 관찰하고 지원하는 시간임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계획안은 매일의 업무가 아니므로 이를 일일 평균으로 계산하도록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정·보완을 한 질문지는 이후 문항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 4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최종 질문지는 ‘일반적인 배경’, ‘직무수행 시간’, ‘운영과정에서의 심리적 어려움’의 3개 영역,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지 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질문지 내용 구성

구성요소	내용	문항유형	수
일반적인 배경	어린이집 소재지,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횟수	선다형	3
	교사의 담당 학급 연령, 최종학력, 주 전공, 평가인증 참여횟수, 최근에 받은 평가인증 시기	선다형	5
직무수행 시간	교수학습 준비 및 평가, 교수학습 실제, 영유아 보호 관련업무, 학부모 관련업무, 사무 관련업무	개방형	14
운영과정에서의 심리적 어려움	업무량 증대,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소홀, 평가기준 모호, 불합리한 기준, 획일화, 업무 지속의 어려움	선다형	1
합 계			23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질문지는 2014년 1월 ~ 3월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가 지역별로 전자우편을 이용해 어린이집에 질문지를 전달했고, 응답한 질문지는 전자우편으로 회수되었다. 보육교사의 직무수행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행 시간(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교사가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직무수행 시간과 어려움에 있어서 담당 학급(영아반, 유아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심층면담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심층면담에는 총 7명의 보육교사가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우선 질문지 배부 시 심층면담의 내용과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참여의사를 밝힌 교사 중에서, 담당학급, 근무경력, 평가인증 참여횟수에 따라 상이한 면담 내용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최대편차를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Creswell,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반 교사 3명, 유아반 교사 4명으로 총 7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심층면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유형	담당학급	근무경력	평가인증 참여횟수
교사 1	유아	8년 10개월	2
교사 2	영아	7년	2
교사 3	유아	4년 2개월	1
교사 4	영아	6년 3개월	2
교사 5	영아	1년 9개월	1
교사 6	유아	3년	1
교사 7	유아	11년	3

2) 자료수집 및 분석

심층면담은 연구자와 교사의 1:1 면담으로 이루어졌고, 통합보육 시간에 어린이집 내 빈 교실에서 진행되었다. 면담 시간은 한 교사 당 1회, 1시간 30분-2시간씩 진행되었다. 면담 내용은 설문조사를 위해 작성된 질문지 문항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면담 과정에서 추가적인 질문이 이루어지면서 평가인증 시 교사의 직무수행 내용과 시간,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이 다루어졌다. 면담내용은 보육교사의 동의하에 녹취함으로써 자세한 현장기록을 남겨 신뢰도를 높였다(Creswell, 2012). 면담 진행 이후에도 미비한 부분이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완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추가 면담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전사된 자료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다시 보여주는 연구 참여자 검증과정(member checking)을 실시하였다. 또한 심층면담은 질문지 문항과 관련한 현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됨으로서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병행으로 연구 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김영천, 2012).

녹취한 자료는 모두 전사하였으며, 전사된 자료는 A4용지 42장이었다. 전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교사가 느끼는 심리적 어려움 중에서 의미 있는 텍스트를 찾아내고 줄을 긋는 세그멘팅 작업을 하였다.

〈표 5〉 도출된 주제어와 세그멘팅 자료

주제어	세그멘팅 자료
자유로운 탐색과 안전 사이	아이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잡기를 좋아하는데, 다칠까봐 자꾸 못하게 해요. 이 정도는 뛰어도 되지 않을까 하다가도 자꾸 저지하게 되고, 안전 핑계대고...안전만 생각하면, 아이들은 앉아서 블록만 쌓아야 해요.

세그멘팅을 통해 중요하게 의미를 도출하고 메시지를 찾을 필요가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련의 반복되는 내용과 의미를 범주화하고 주제어를 도출하였다(Bogdan & Bikelen, 1992). 이에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교사는‘영유아와의 상호작용과 그 외 업무 사이’, ‘자유로운 탐색과 안전·건강 사이’, ‘우리 이야기와 외부 기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즉 교사는 평가인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기 틀린 방향의 힘과 힘이 충돌하고 복잡하게 뒤얽혀 갈등(네이버 국어사전, 2016)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Ⅲ. 연구결과

1.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직무수행 시간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보육교사가 하루 동안 수행하는 직무내용과 각 내용별 수행 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직무수행 시간 (N=413)

업 무		영아반 교사	유아반 교사	t	
		M(SD)	M(SD)		
교수학습 실제	등하원지도	54 (39.7)	53 (37.2)	1.07	
	오전 오후 간식지도	50 (17.1)	48 (18.1)		
	급식 지도(점심)	53 (18.4)	56 (20.4)		
	자유선택활동지도(보육교사가 직접 관찰하거나 지원하는 시간)	125 (45.7)	112 (50.5)		
	실외놀이지도(보육교사가 직접 관찰하거나 지원하는 시간)	39 (15.0)	57 (19.2)		
	대·소집단활동 지도	14 (16.0)	40 (26.4)		
	양치질, 씻기기, 배변 지도 등	40 (19.5)	32 (18.8)		
	낮잠지도 (영유아와 상호작용 하는 시간)	54 (43.0)	34 (32.5)		
	소 계	429 (7시간 9분)	432 (7시간 12분)		
교수학습 준비 및 평가	보육계획안(1주에 한번 작성하면 일일 평균으로 기록. 예:1회 2시간이 소요되면 120분÷5일=24분)	26 (17.1)	27 (16.5)		
	보육일지 작성	45 (23.9)	44 (24.8)		
교수학습 실제 이외	학부모 관련업무	알림장(일일보고서, 대화수첩 등), 개별 영유아 관찰 기록 등 개별 영유아에 대한 기록	41 (21.7)	39 (20.9)	-.32
문서 업무	사무 관련업무	개별 분장 업무 기록(교사 회의록, 식단표, 소방훈련 실시 기록, 가정통신문 작성 등 본인의 분장 업무를 실제 하는 시간)	57 (41.3)	46 (35.6)	
기타	영유아 보호 관련업무	투약일시 기록, 생활기록부 등 건강·안전 관련 기록	20 (15.4)	19 (14.9)	
	청소	47 (19.4)	47 (18.6)		
소 계		236 (3시간 56분)	222 (3시간 42분)		
합 계		665 (11시간 5분)	654 (10시간 54분)		

<표 6>과 같이, 보육교사는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직무 수행을 위해 영아반 교사는 11시간 5분, 유아반 교사는 10시간 54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직무에는 매일의 일상적인 하루 업무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성 신장, 행사 관련업무, 시설설비 관련업무, 대인관계 및 사회적 업무 등을 제외한 것이므로, 이 업무가 이루어지는 날에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교수학습 실제 영역을 살펴보면, 등하원지도, 놀이지도, 생활지도, 상호작용 등 영유아들과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영아반은 7시간 9분, 유아반은 7시간 12분을 소요하고 있어서 유아반이 3분 정도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또한 교수학습 실제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영아반은 3시간 56분, 유아반은 3시간 42분을 소요하고 있어서 영아반이 14분 정도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었지만,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한편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의 교사 업무 수행 내용과 시간 운영에 대한 심층면담도 진행되었는데, 그 내용을 교수학습 관련업무와 그 외의 업무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교수학습 관련업무에 대한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하다보면 평가인증에서 요구하는 서류 하기가 힘들어요. 낮잠 시간에는 1시간 정도 시간이 나고, 통합 보육시간에 잠깐 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7시나 8시에 퇴근하게 되요(교사 4).

보육과 그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보육교사의 체력적인 면과 시간의 부족함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고 정해져 있는데 아이들이 하원하고 나면 다섯시. 그 이후에 일지 쓰고... 일지 쓰는 데 시간이 쏠 걸려요. 누리과정의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는지를 체크하면서 찾아서 써야하는데, 그걸 다 외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도 체크하다보면 주가 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며 작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영역과 개수를 고려해야 하니까. 계획하는 데는 1시간 넘게 걸리고, 그러다보니 계획하고 평가하는 것은 집에서 많이 하게 되요. 보통 어린이집에서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시간이 나는데, 그 시간에는 수업에 필요한 교구를 만들거나 출력한다던가 하면 그 시간이 훌쩍 지나가니까...(교사 7).

아이들 관찰일지는 하루에 2-3명 관찰하다보니까 15분 정도 걸리고, 월간 계획은 한 달 동안 할 것과 행사까지 작성해야 해서 2-3시간 걸리고, 주안은 월간계획에 맞추어 짜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덜 걸려요. 1시간 정도...(교사 1).

어린이집에서 교사는 일반적으로 9시-6시까지 9시간 동안 영유아들과 함께 생활한다. 그러다 보니 교수학습을 위한 준비나 평가 등은 낮잠시간이나 통합보육 시간외에는 6시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평가인증에서 요구하는 영유아와의 질 높은 상호작용과 교수학습 계획 및 평가를 위한 문서작성까지 모두 수행하기 위해 매일 추가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다음은 보육교사가 매일 수행하는 업무 중 교수학습 관련업무 외에 학부모·영유아 보호·사무 관련 업무에 대한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알림장은 일주일에 두세 번 작성하다보니 하루에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교사들 간에 업무 분장이 나뉘어있는데, 보통 내가 하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다보니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원장님은 유아반은 인원수가 많아서 업무분장을 조금 빼 주시기는 하세요. 식단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희는 생태쪽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보고, 조리사 선생님하고 맞추어보고, 영양 맞추고 그러면 시간이 꽤 걸려요. 1주일에 한번 하는 것이지만 1시간 이상 걸려요. 저희는 특히 식단을 짜고 나면 다시 그쪽에 보내서 점검을 받거든요(교사 3).

평가인증에서는 청소하는 시간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30분씩 번갈아가면서 청소할 수 있도록 자유선택활동을 교실에서 하다가 다른 옆 반에 가게 되는데, 물론 주제가 같지만 놀이감도 다르니까 자유선택활동이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노는 시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청소하는 시간에는. 그런데 그 시간이 30분, 30분씩 되면 아이들한테는 1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깝긴 한데, 그렇다고 아이들이 다 귀가하고 청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평가인증에서 이야기하는 일과에는 청소시간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사가 교구를 만들 시간도 없어요. 노동부에서는 8시간을 일하라고 하는데, 넘치는 3시간은 어떻게 해결 건지...(교사 1).

어린이집에서 교사는 교수학습 관련업무 외에 매일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한 알림장 작성, 각자가 맡은 업무 처리, 교실 청소 등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이 중 <표 5>의 사무 관련업무에서 영아반 교사가 유아반 교사보다 업무 시간이 근소하지만 좀 더 많았던 이유를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유아반이 인원수가 많으므로 영아반 교사에게 개별 업무 분장을 좀 더 맡기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하는 데는 50분 정도 소요되는데<표 5 참조>,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통합보육을 하면서 청소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교사는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활용하면서도, 그 시간이 영유아들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 것 같으며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2.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심리적 어려움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지를 분석하고, 그 후 심리적 어려움의 구체적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교사들의 이야기를 정리하였다. 보육교사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심리적 어려움 (N=413)

구 분	영아반 교사	유아반 교사	전체
	n (%)	n (%)	
교사의 지나친 업무량 증대	161 (35.6)	147 (39.3)	308 (37.3)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소홀	106 (23.4)	103 (27.5)	209 (25.3)
평가의 기준 모호	54 (12.0)	28 (7.5)	82 (9.9)
불합리한 기준 포함	45 (10.0)	24 (6.4)	69 (8.4)

다양성 보장 없는 획일화 (보육과정 운영, 보육일지 및 관찰기록 등)	51 (11.3)	31 (8.3)	82 (9.9)
평가인증 업무 지속의 어려움	35 (7.7)	41 (11.0)	76 (9.2)
합 계	452 (100)	374 (100)	826 (100)

* 합계가 826인 이유는 선다형(2개 선택)이기 때문이다.

한편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보육교사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심층면담도 진행되었다. 그 내용을 ‘영유아와의 상호작용과 그 외 업무 사이’, ‘자유로운 탐색과 안전·건강 사이’, ‘우리 이야기와 외부 기준 사이’에서 갈등하며 겪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평가인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유아와의 상호작용과 그 외 업무 사이’에서 갈등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평가인증 준비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내내 요구하는 많은 서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육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봐요...(교사 5).

영유아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사실로 말하면 교사들이 아이를 방치하게끔 만들어요. 할 일이 많으니까. 교사는 상호작용하고 아이들의 흥미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을 시간에 서류를 만들어 내야하니까. 아이들이 방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미안해요(교사 6).

교사는 교육을 맡아서 해야 하는데 평가인증 제도에 맞추기 위해서 교사들이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여서 다른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하니, 그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마음이 불편해요(교사 3).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서 평가인증에서는 정말 선생님들이 교육과 관련된 일을 잘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면, 그런 쪽으로만 포커스를 딱 맞추어서, 선생님들이 정말 계획하고 준비하고 아이들과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너무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고 하다보면 이 부분은 더 축소되지 않을까...(교사 2).

보육교사의 업무 시간은 무한대가 아니다. 어느 정도 정해진 업무 시간이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잘 해내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상대적으로 무언가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모든 일이 꼭 필요한 일이다보니 그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다. 즉 교사는 정해진 업무 시간 안에서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포기하자니 교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 외 업무를 포기하자니 늦게까지 남아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둘째, 평가인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탐색과 안전·건강 사이’에서 갈등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바구니에서 먼지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리고 미세먼지 많으니 창문 열지 말라고... 이미 이 안에도 아이들 20명이 있고 그러다보면 먼지가 많아지고, 청소하고 퇴근 후 아침에 와서 보면 청

소할 정도로 또 먼지가 쌓이고. 저희는 매일 쓸고 닦고 하는데도 바구니에 먼지가 남아 있으면 캄캄캄하게 놀라게 되고....그렇다고 아이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교사 3).

아이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잡기를 좋아하는데, 다칠까봐 자꾸 못하게 해요. 이 정도는 뛰어도 되지 않을까 하다가도 자꾸 저지하게 되고, 안전 핑계대고.... 안전만 생각하면, 아이들은 앉아서 블록만 쌓아야 해요(교사 5).

소식을 듣다보면 교구는 스크래치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 끼면서 마찰이 생기면 스크래치 생길 수 있는데...교재교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만이라도 스크래치 되면 그것에 너무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이것은 교육이라기보다는 교재 교구를 가지고 놀이하는 것을 막게 되는 그런 제도의 단점이 있어요....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교재교구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요(교사 4).

안전과 건강은 영유아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영역의 지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다른 영역의 지표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진다. 앞서 <표 6>에서 불합리한 기준 포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영아반 교사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 것은, 안전이 유아들에 비해 영아들에게 있어 좀 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교사들은 안전과 건강 영역에 민감하게 관심을 기울이며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치 자유로운 탐색과 놀이가 안전의 반대편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 사이에서 갈등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셋째, 평가인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야기와 외부 기준 사이'에서 갈등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가 아이들과 어디선가 집중해서 활동을 하면 나머지 영역에서 뭘 하는지가 잘 안 보여요. 거기다가 등하원 시간하고 겹치면서 계속 아이들이 오면 또 무얼 했는지 관찰이 안 되고, 그런데 그걸 계속 쓰라고 하니.. 거기다가 내용을 바꿔서 써야 해요. 활동은 안 바꾸더라도 내용이라도 바꿔서 써야하고. 그러니까 소설을 쓰게 되요. 그리고 관찰자가 와서 왜 주제하고 안 맞는 활동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주제가 공룡인데, 애들이 자동차 만들었다고 일지에 쓰면 또 뭐라 하니까 그 말을 안 쓰게 되고(교사 7).

우리는 체험이나 인성도 부모랑 같이 하는 인성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동화책을 읽어주시거나 또 마술쇼도 해주러 오시구요. 본인이 특기나 재능 같은 것을 보여 주세요. 연감을 썼어요. 그래서 인성담당교사가 책도 미리 대여해드리고 그러다보니까 엄마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사실대로 일지에 넣을 수 없는 상황. 그 활동 때문에 자유선택활동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래서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는 것도 숨겨야 하는...너무 어려웠어요. 모든 것을 단일한 기준에 딱 맞춰서 그 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딱 잘 맞춰서 걷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교사 1).

점수를 위해서 사실을, 진실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평가인증의 가장 적나라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번에 평가인증을 받으면서 아이들 놀이를 그대로 기록하기보다는 좀 바꿔서 적었어요. 그리고 보면서 자꾸 수정도 몇 번 하구요. 뭐가 그들이 원하는 것인지 모르니까....교사들

이 계속해서 뭔가 거짓말을 하도록 요구받는...안 그러면 점수를 깎이고, 불시점검을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까 거짓말이 일상화되는. 이런 저런 상황으로 실외 활동을 못나가도 모든 것을 평가 인증 받았을 당시의 그대로 일지에 쓰는 거예요(교사 6).

질 높은 보육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데 또 정확한 기준이 제시되면 역동적인 보육 현장이 너무 획일화되는 것 같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즉 교사는 어린이집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그 때 그 때 이루어지는 무수히 많은 행동이 혹시나 기준에 맞지 않을까 고민하고, 제시된 기준에 가능하면 맞추려고 노력하면서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갈등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직무수행 시간과 그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냄으로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91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4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교사 7명과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에 보육교사의 직무수행 시간과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결과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논의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육교사는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영아반은 하루 11시간 5분, 유아반은 10시간 54분을 소요하고 있었다. 2009년 전국 국공립 보육교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하루 평균 9시간 36분이었다(보건복지부, 2009). 그런데 이와 근접한 시기인 2008년 서울·경기 지역 평가인증 참여시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조사한 결과는 그보다 많은 10시간 25분으로 나타났다(김영희, 박지현, 이은주, 2008). 물론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50여분 차이가 나는 것은 평가인증을 운영하면서 교사의 업무가 좀 더 많아질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2012년 전국 국공립 보육교사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 39분(보건복지부, 2012)으로 2009년(9시간 36분)에 비해 근소한 차이지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평가인증을 운영하는 교사의 근무시간은 11시간으로 나타났으므로, 2012년 전국 보육교사 근무시간과 비교해 볼 때 하루 평균 1시간 20여분 더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8년도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 근무 시간이 10시간 25분인 것(김영희 등, 2008)과 비교해볼 때는 하루 평균 35분 정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교사는 매일 상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업무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수학습 실제를 위해 영아반은 7시간 9분, 유아반은 7시간 12분을 소요하고 있었고, 교수학습 실제 이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영아반은 3시간 56분, 유아반은 3시간 42분을 소요하고 있었다. 그 중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업무로 지목되는 문서 업무(이진옥, 2008; 정은정, 2012; 조경서, 유준호, 2009)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영아반은 매일 3시간 9분, 유아반은 매일 2시간 55분을 소요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의 법적 운영 시간인 12시간 중 담임은 일반적으로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영유아와 함께 한다. 교사는 이 시

간동안 내내 영유아로부터 눈을 뗄 수 없고, 눈을 떼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교사는 6시 이후에 3시간여에 달하는 문서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더불어 47분 청소까지 추가된다면 노동법에서 이야기하는 하루 8시간 근무보다 매일 4시간(점심 식사시간까지 포함한다면 5시간)의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연구 결과는 교수학습 실제 업무 중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다. 평가인증에서 하루일과 중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2시간 30분(150분) 이상 계획하고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교사가 영유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시간은 영아반은 125분, 유아반은 112분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영아반 교사는 25분 동안, 유아반 교사는 38분 동안 영유아와의 상호작용보다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심층면담에서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청소 업무를 한다는 교사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보육활동 및 낮잠 시간에 교실을 비우거나 다른 업무를 경험한 정도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교사가 절반 이상(54.5%)인 연구결과(정재은, 정은정, 2012) 역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같이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직무수행 내용과 시간을 살펴볼 때, 교사는 매일 초과근무를 해야만 가능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특히 문서작업이나 청소 등의 업무로 인해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시간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간부족을 경험하는 교사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이어서 두 번째 논의에서도 계속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교사의 가장 큰 심리적 어려움은 ‘영유아와의 상호작용과 그 외 업무 사이’에서의 갈등이었다. 본 연구 결과 보육교사가 평가인증 운영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지나치게 늘어난 업무량으로 나타났고, 이는 많은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경란, 서동미, 2012; 정재은, 정은정, 2012; 조경서, 유준호, 2009; 차영숙 등, 2012).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교사들은 영유아와 상호작용이 소홀해지는 것에 대한 염려도 드러냈다. 즉 보육교사는 평가인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영유아를 관찰하고 흥미를 파악하며 지원하는 교육적 역할과 늘어난 그 외 업무를 수행하는 것 사이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늘 갈등하는 것이다.

평가는 기본적으로 관찰과 기록, 면담의 방법으로 진행된다(한국보육진흥원, 2015). 따라서 그 날 하루의 관찰로 확인할 수 없는 그 밖의 많은 지표는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문서 작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다. 이로 인해 교수 실제 이외의 업무가 과중되었고, 과도한 문서 작업으로 인해 정작 교육에 들일 시간과 열정을 빼앗겨 정상적인 교육 운영 자체가 방해받고 있는 것이다(곽진숙, 2012). 따라서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교사가 겪는 어려움은 단지 업무가 많아서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단순한 차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영유아와 상호작용할 때는 ‘그 밖의 다른 할 일을 언제 다 하지’하며 난감해하고, 다른 업무를 처리할 때는 ‘교사로서 내가 지금 아이들과 상호작용해야 하는데’라며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 불안해한다. 이처럼 교사는 매일의 일과 속에서 매 순간 무엇부터 할 것인지 갈등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평가인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교사의 심리적 어려움은 ‘자유로운 탐색과 안전·건강 사이’에서의 갈등이었다. 본 연구결과 보육교사는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마음껏 놀게

하고 싶지만 안전과 건강 때문에 영유아의 자유로운 탐색과 놀이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는 심리적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은 특히 안전과 건강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영아반 교사에게서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평가인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는 평가인증으로 인해 어떤 평가영역보다도 안전과 건강 영역이 가장 향상되고 유지되었다는 선행연구(김복희, 2010; 변경선, 2008; 장상란, 서현아, 2009)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영역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고려되면서 교사는 다른 영역과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다. 즉 영유아의 주도성을 키우는 자유로운 탐색과 놀이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뛰면서 놀면 부딪혀 넘어질까봐, 나뭇가지나 돌맹이는 다른 친구를 다치게 할까봐, 3.5cm보다 작은 물건은 삼킬까봐, 밤송이 등의 자연물은 찢릴까봐 안 되는 등과 같이 안전을 이유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많아지고(김영명, 2014), 안전을 이유로 교사의 통제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보육환경, 보육과정, 상호작용이 보육의 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이송이, 손여경, 2009)하는 교사들은 안전 때문에 그 부분을 실천하는 데 심리적 제약을 받고 있었다. 서로 상반되는 영역이 아닌 영역들이 마치 이거 아니면 저거와 같이 하나를 중시하면 다른 것은 실천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인증의 성과로 안전과 건강 영역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단순히 긍정적 성과로만 판단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교사는 자유로운 탐색과 놀이를 지원하면서도 ‘저러다 다치면 안 되는데’하며 걱정하고, 안전을 위해 제한하고 제지하면서도 ‘아이들의 발달을 위해서는 이렇게 자주 막으면 안 될 텐데’라며 자책한다. 이처럼 교사는 매일의 일과 속에서 무엇을 더 중시할 지에 대해 갈등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교사의 심리적 어려움은 ‘우리 이야기와 외부 기준 사이’에서의 갈등이었다. 본 연구결과 보육교사는 각 어린이집의 지역이나 시기적 특성에 의해 진행되는 활동, 영유아의 흥미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 복잡한 하루 일과에서 관찰을 놓친 상황 등을 평가기준에 맞지 않을까봐 사실대로 기록하지 못하면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한 어린이집의 질이 평가인증 점수로 대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는 혹시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점수를 못 받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기 보다는 기준에 맞추는데 관심을 갖고(조경서, 유준호, 2009),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도 진행된 것처럼 기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차영숙 등, 2012). 즉 평가인증 점수를 높이 받기 위해 내부적인 특성보다는 정해진 외부 평가기준, 그리고 외부 조력자와 평가자의 관점을 더 중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특성, 각 교실의 환경, 지금 여기에서 생활하는 영유아와 교사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구성원의 요구와 필요가 중시되어야 한다(장상란, 서현아, 2009). 그런데 교사는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내 교실의 영유아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다가도 그것이 외부 기준에 적합한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무언가 모호하거나 석연치 않으면 포기하거나 혹은 실제로 운영하면서도 다른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이처럼 교사는 각 어린이집과 교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하면서도 ‘이것이 평가인증 기준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하지’라며 걱정하고, 기준을 늘 염두에 두고 운영하

고 기록하면서도 ‘진짜 이렇게 한 것은 아닌데’라며 마음이 편치 않다. 이처럼 교사는 매일의 일과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갈등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드러난 교사의 심리적 어려움은 평가인증 제도 자체가 의도하지 않은, 혹은 평가인증 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오해한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평가인증 제도 자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든,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생생한 모습이므로, 드러난 어려움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어떻게’라는 질문의 답에는 지표를 바꾸고 평가절차를 바꾸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부의 변화만으로는 평가인증 목적인 보육의 질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교사 내면의 심리적 어려움을 바탕으로 교사의 인식전환에 초점을 둔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평가지표 수행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질 높은 보육을 이루는 데 관심을 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는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교육적 역할과 기록자 역할, 자유로운 탐색 및 놀이 지원 역할과 안전 도모 역할, 내부 특성을 고려하는 역할과 외부 평가 기준을 준수하는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 혼란은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노진호, 2002), 이를 긍정적 양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민과 갈등, 혼란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평가인증 안내 자료집(한국보육진흥원, 2015)을 살펴보면, 평가인증의 개발과정은 우선 평가인증의 목적이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보육의 질이 무엇인지, 보육의 질이 영유아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마지막으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영역과 지표를 제시한다. 그런데 평가인증 지표를 운영하는 교사는 목적에 대한 고민도, 그것이 영유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바로 평가지표 운영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질 높은 보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외부에서 전문가가 이미 다 해주고, 교사는 그저 그 목적을 위해 세부적으로 구성된 행위만을 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고민과 갈등, 혼란의 방향이 질 높은 보육이라는 평가인증의 목적을 향하기보다는 지표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면 완성하여 점수를 높일 수 있을까에 모아지게 된다.

이와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을 지닌 보육의 질을 외부 전문가가 단순한 지표로 제시할 때,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지표 완성에만 매진하게 되면서 주변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평가인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어떻게’할 것인가에 지나치게 치중하기보다는 ‘무엇을’, ‘왜’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질 높은 보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교사 스스로 고민하며 행할 필요가 있다(Dahlberg, Moss, & Pence, 2007). 보육의 질은 어느 시기, 어느 상황,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불변하는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육의 질은 매우 역동적이며 다양하고 사회문화적 신념과 가치에 토대를 두는 개념(Tobin, 2005)이기 때문에 영유아와 여기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교사가 그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질 높은 보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외부 평가 기준을 그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구성원과 가족이 함께 고민하여 동의한 명확한 철학과 목표를 갖고, 그것을 지침으로 기관 내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옥,

2002)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평가인증의 평가 영역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며 부분 최적화가 아닌 전체 최적화에 관심을 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평가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보육의 질을 구성하는 핵심 영역을 선정하고 그 영역을 대표하는 핵심 지표를 설정하게 된다. 이는 전체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부분을 다시 합하면 원래의 전체로 환원된다는 ‘전체는 언제나 부분의 합과 같다’는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는 더 나아가 전체를 개선하고자 할 때, 그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개선한 다음 다시 합하면, 부분들이 개선된 합계만큼 전체도 개선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김용진, 2015). 이 과정에서 모든 평가지표들은 반드시 달성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고, 교사들은 각 영역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즉 오로지 안전을 위한 안전에 주력하고, 기록을 위한 기록에 충실하며, 환경구성을 위한 환경구성에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보육의 질을 구성하는 모든 평가영역은 현장에 투입되는 순간 역동적으로 상호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데 각각의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영역 간에 갈등이 발생할 때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평가 영역은 서로 간에 절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상반된 것도 아니며, 이것이 되면 저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부분으로 나누어 최적화할 것이 아니라,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평가인증 지표를 운영해가는 관점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전체 최적화’라 한다. 전체 최적화는 전체의 합은 부분의 합보다 클 수 있다는 사상으로(김용진, 2015), 각 영역의 점수를 높이는 데 관심을 갖기보다는 영역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며 평가인증의 목적인 질 높은 보육을 이루는 데에 관심을 갖는다.

즉 교사는 평가인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안전, 기록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질 높은 보육을 위한 안전, 질 높은 보육을 위한 기록, 질 높은 보육을 위한 상호작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축소되는 것이 있고, 확대 되는 것이 있으며,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것이 있고, 약간 소홀해지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상호작용이 중요할 때 기록은 간소화될 수도 있고, 자유탐색이 중요할 때 모든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안전은 축소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것이다. 이 목적을 놓치게 되면 전체의 합은 부분의 합도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작아질 수도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교사가 수행하는 직무내용과 시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냄으로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특정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로 제한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그 외 유형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직무수행 현황과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유형별 기관의 특성에서 오는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교사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보다 깊이 있게 드러냄으로서,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놓쳐서는 안 될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의 가장 기본이며 핵심은 우선 그 원의 영유아, 가족, 보육교직원들이 함께 자신들이 목적으로 하는 보육의 질을 고민하고, 이에 더하여 외부 기준을 참고삼으면서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제 현장은 다음과 같이 나아가기를 바래본다.

교사 스스로 어디로 왜 가고 있는지를 알아가기를...

그리고 지표에서 눈을 떼고 아이들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참고 문헌

- 곽진숙 (2012). 교육의 원리에 근거한 대학평가인증제 발전방향 탐색. **교육원리연구**, 17(1), 1-33.
- 권혜진 (2015, 8). **분야별 인증제 사례분석연구**.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개편 토론회, 서울.
- 김경란, 서동미 (2012). 1차, 2차 평가인증 통과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의 인식 : 1, 2차 평가인증을 통과한 A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보육연구**, 8(2), 23-44.
- 김동례 (2007). 보육시설 종사자가 인식한 평가인증제의 운영과정과 사후유지관리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복희 (2010).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보육시설의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향, 최연희 (2009). 평가인증에 통과한 보육시설의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식 연구. **아동교육**, 18(2), 65-78.
- 김영명 (2014, 11). **안전을 위한 안전인가, 아동을 위한 안전인가?**. 대한아동복지학회 ·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공동추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논문, 서울.
- 김영희, 박지현, 이은주 (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자료활용 및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9(3), 387-397.
-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론 I**.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용진 (2015). **경영학 사용설명서**. 서울: 클라우드나인.
- 김은영 (2013).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 및 수행여부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30(2), 121-145.
- 네이버 국어사전 (2016). **갈등**. <http://www.naver.com>에서 2016년 2월 8일 인출.
- 노진호 (2002). **존 듀이의 교육이론 : 반성적 사고와 교육**. 서울: 문음사.
- 변경선 (2008). 평가인증 참여 보육시설 교사의 보육의 질 향상과 유지에 관한 인식 연구. **변형영유아교육연구**, 2(1), 47-72.
- 보건복지부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서문희 (2015, 8).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개편 토론회, 서울.
- 서문희, 신희연, 송신영 (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효과분석**. 서울: 보건복지부 · 육아정책연구소.
- 양기용 (2015, 8). **수요자중심의 어린이집 평가결과 공개 및 적용방안**.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개편 토론회, 서울.
- 이나영 (2006).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평가인증제에 관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인식.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송이, 손여경 (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 관련연구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유아교육 · 보육행정연구**, 13(4), 247-266.
- 이 옥 (200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과 보육의 질. **사회과학연구**, 8, 213-229.
- 이은정 (2011). 보육교사의 직무시간 운영에 대한 연구. 충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옥 (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조사 : 인천광역시 보육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상란, 서현아 (2009). 평가인증 후 보육시설 종사자의 평가인증에 대한 인식 및 사후 관리 실태. **생태 유아교육연구**, 8(3), 191-222.
- 정원주 (2007).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51, 45-64.
- 정은정 (2012).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은, 정은정 (2012).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실태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0(1), 67-94.
- 조경서, 유준호 (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과정에 참여한 시설장과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1), 67-95.
- 차영숙, 유희정, 강민정 (2012).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들려주는 평가인증 참여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 **유아교육연구**, 32(6), 83-109.
- 채영란, 김치곤(2013).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따른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변화 및 요구도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1(4), 313-346.
- 채혜선, 현정희 (2008).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유무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기평가 전문성 발달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52, 63-84.
- 한국보육진흥원 (2015).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서울: 한국보육진흥원.
- 한국보육진흥원 (2016). **평가인증 관련통계**. <http://www.kcpi.or.kr/> 에서 2016년 1월 30일 인출.
- 홍성희, 김미정, 이경화 (2009). 직장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지표에 대한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14(4), 433-456.
- 황인숙 (2006).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해익, 김남희, 정혜영 (2013).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현안 및 발전방안.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6), 461-490.
- Bogdan, R. C., & Bikelen, S. K. (1992).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Boston: Allyn & Bacon.
- Creswell, J. W. (2012).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2E*, **질적 연구방법론**(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옮김). 서울: 학지사(원판 2007)
- Dahlberg, G., Moss, P., & Pence, A. (2007). *Beyond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포스트모던 유아교육-새로운 이해와 실천을 열어가기**(김희연, 신옥순, 염지숙 옮김). 서울: 창지사(원판 1999).
- Doherty-DerKowski, G. (1995). *Quality matters: Excellence in early childhood programs*. Don Mills, Ontario: Addison-Wesley Publishers Limited.
- Katz, L. G. (1993) *Five perspectives on quality in early childhood programs*. Urbana, IL:ERIC/EECE.
- Phillips, D., Voran, M., Kisker, E., & Howes, C. (1994). Child care for children in poverty : opportunity or inequity?, *Child Development*, 65(2), 472-292.
- Tobin, J. (2005). Quality in early education: An anthropologist's perspective,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6(4), 421-43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working time and psychological difficulties of national and public daycare center teachers in the operation process of an accreditation system and seek ways of resolving them.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413 teachers in 291 national and public daycare centers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7 nursery teachers. It showed that in the operation process of an accreditation system, teachers had been performing heavy tasks of 11 hours daily, and they were experiencing psychological difficulties with the conflict 'between interactions with infants and other duties', 'between free exploration and safety · health', and 'between our story and external criteria'. Based on the findings, the following changes of recognition for nursery teachers were required. First, there is a need for the change of recognition concerned with the child-care of high quality, rather than performing evaluation index. Second, there is a need for the change of recognition concerned with overall optimization rather than sectional optimiz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uggested the basic direction for the operation process of an accreditation system, by exploring the psychological difficulties of nursery teachers.

■ **Key words** accreditation system, working time, psychological difficulties, way of solving

논문투고	15.10.25
수정원고접수	16.01.31
최종게재결정	16.02.14